

혈액투석 중인 다낭신 환자에서 발생한 간낭종 파열 1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장명희 · 이창화 · 김근호 · 강종명

서론 : 다낭신에서 간낭종은 흔하게 동반되지만, 파열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연구들은 다낭신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유지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 혈액투석 카테터 혈전증 치료를 위해 urokinase를 사용한 후 간낭종 파열이 발생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 74세 여자 환자가 18년 전에 다낭신을 진단 받고 만성신부전이 진행하여 16년 전부터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왔다. 환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지내다가 구토와 오른쪽 대퇴부 부종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하기 1일전, 혈액투석의 혈관통로로 사용하던 피하터널커프도관의 혈전증이 의심되어 urokinase 20,000 U를 도관내 세척한 바 있었다. 응급실에서 측정된 수축기 혈압은 50 mmHg였고, 혈색소 8.4 g/dL였으며, 수혈 및 수액 요법으로 회복되었다. 이후 안정된 경과를 보이다가 입원 26일째 사용하던 피하터널커프도관의 기능이 다시 불량해져서 urokinase 10,000 U를 도관내 세척하였고, 6시간 지나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복통은 전반적이었고 식후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었다. 복부 진찰에서 복부 전체에 걸쳐 압통과 반발통이 관찰되었다. 복통은 대증요법에 반응하지 않고 점차 심해져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간낭종 파열 및 복강내 체액 저류 소견이 관찰되었다. 혈색소는 10.6 g/dL로서 복통 발생 전 9.5 g/dL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고, 혈액응고검사서 출혈시간 2분 30초, PT 12.6초 (83%), aPTT 28초였으며, 혈소판 227,000/mm³였다. 혈액화학검사서 간기능검사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이후 금식과 대증요법으로 4일만에 복통이 호전되었다.

결론 : 다낭신 환자에서 급성 복통이 발생할 경우 간낭종 파열을 감별하여야 한다. 이는 혈전용해제 사용에 의해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낭신 환자에서 항응고요법 혹은 혈전용해제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